

“전환 시대의 답, 현장과 함께 찾는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속의 원탁회의 개최
- 노·사, 청년, 중장년 등 각계각층 참여, 사전 시민투표로 공론의 장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7월 1일(수) 서울 로얄호텔에서 노·사, 청년, 중장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속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AI·디지털 전환(AI)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GX)으로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현장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회의에 앞서 온라인 투표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현장 토론을 넘어 공론의 장을 한층 넓혔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① 모니터링 ② 역량 향상 ③ 일자리 창출 ④ 고용 안전망 ⑤ 일터 개선 ⑥ 기본원칙 등 6개 분야별 테이블에서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시민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직접 투표로 선정하며 깊이 있는 숙의를 이어갔다.

김영훈 장관은 “전환 시대 변화의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 앞에서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회계약의 해답은 결국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포함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환 흐름의 모니터링, 취약계층 안전망, 역량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1.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속의 원탁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축사(영상).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붙임 1**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속의 원탁회의 개요**

□ **[일시/장소]** 7.1.(수) 14:00~18:00 / 서울 로얄호텔 3층 로얄블룸

□ **[참석]** 노·사, 지역, 청년·중장년·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각계각층 현장 관계자 50여 명

□ **[운영방식]** 현장 참여형 투표로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과제 구체화 → 도출된 의견은 전체가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

* ① 모니터링 ② 역량 향상 ③ 일자리 창출 ④ 고용안전망 ⑤ 일터 개선 ⑥ 기본원칙

□ **세부 일정**

※ 장관 영상축사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참가 등록	
14:00~14:07	7'	• 개회 및 인사말씀	진행자
14:07~14:10	3'	• 장관님 축사 영상	
14:10~14:20	10'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그간의 논의경과 등 설명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14:20~14:30	10'	• 사전투표 결과 공유	진행자
14:30~15:30	60'	< 1차 분임토의 > - 핵심과제별 분임토의 - 논의된 의견 중 중요과제 투표 선정	분임별 진행자
15:30~15:40	10'	• 휴게시간	
15:40~16:40	60'	< 2차 분임토의 > - 1차 논의 심화, 쟁점별 추가 토론 - 중요의견 투표로 최종 선정	분임별 진행자
16:40~16:50	10'	• 휴게시간	
16:50~17:40	50'	• 테이블별 논의 결과 발표 • 타운홀 미팅 결과 공유	진행자
17:40~17:50	10'	• 마무리 말씀	고용정책실장
17:50~18:00	10'	•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진행자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X, GX로 대표되는 전환 시대의 일자리 문제는,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평생직장, 조세, 사회보장제도까지
우리 사회를 떠받쳐 온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 앞에서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그 원칙 위에서,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오늘 원탁회의 전에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온라인 투표로 생각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의 깊은 숙의가 더해질 때,
기본계획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 나누어 주실 소중한 목소리를
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